

速成 sketch에 制動을 걸며

安 日 成

건축 경기불황속에서도 난 요즘 무척이나 바쁘다. 모든 상황이 끈끈한 이때 나에게만 일감이 많아서가 아니라 요즘에 난 건축사 아닌 건축주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벌써부터 벅르던 나의 조그만 作業室 구상을 한다고 밤낮없이 제도판위에 그렸다 지웠다 또 그리고 지우고, 잠을자다가도 머리맡 메모지에 글적거리기가 한 두번이 아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위운 사무소계획이 그렇게도 까다롭고 힘들 줄 미처 몰랐다. 현재의 예산 장차 증축후의 부분용도변경, 일차공사 때의 design, 장차 완공후의 완벽한 기능과 멋 이 두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란 무척 어렵다는 걸 절실히 맛보는 중이다. 이것은 건축사인 내가 건축주가 되었을 때 피부로 느끼는苦心이리라. 과연, 나 아닌 건축주가 집을 계획 할 때의 무한한 꿈과 건축작품에 대한 욕망이 어떠한가? 요즘 새삼 생각해 본다. 이제껏 건축주의 요구에 적당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나의 習作 대상이 되어왔지 않았는가? 과연 나의 건물이라면 그렇게도 대담하게 구상하고 그려낼 수 있었을까?

memo紙나 못쓰게 되버린 청사진 뒷면에 볼펜이나 4B 연필로 그 나름대로의 着想과 구상에 자기만족을 그려대지 않았던가? 그때는 그 나름대로 자기만족에, 건축에 無知한 건축주들을 설득 내지 合理性을 들어 멋진 理論으로 건축주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工事도중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멋진 변명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現場에서 즉석 설계변경 하지 않았는가? 물론 좋은작품, 나름대로의 만족한 작품임에는 자신했었으나 나에겐 수 없이 변형 변화시키며, 그려대는 그림쟁이가 돈 안들이고 기분대로 생산해내는 건축사의 특권에 얼마나 혼자 만족 하였던가?

나에게는 모두가 특색있는 작품(그림)이었기에 모두가 다 그럴때의 즐거움의 소산이었으니까.

경비 안들이고 또 적지않은 보수까지 받아가며 한장의 종이에 소중한 落書를 해주곤 만족을 포만(?)하였던나, 요즘 나는 건축사 아닌 건축주 입장이 되어있다. 틈만 있으면 車속에서, 또 남들의 對話 속에서도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수 많은 과제를...

즉 조그만 나의 사무실(아뜨리에)구상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실제 의뢰를 받았을 땐 그렇게도 수월하게 계획 결정 되던것이 이토록 어렵고 구상, 계획, 수정에 장시간을 요하는 건지를, 비교 해 볼때 건축주의 모르는 안타까움이 오죽 했을까? 생각하니 공연히 미안한 생각이 들곤한다. 建築主인 나와 他人인 건축주, 전연 다를 바 없건만 자신의 건축물 계획엔 어찌 이다지 장시일 確定지어지는 일이 없고 어려운지 他人인 건축주에게는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論理 정연히 이야기되고 설득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환자의 내장을 멋지게 수술 해내던 의사가 자신 아들의 맹장수술엔 자신을 못 가지는 것 같아서 일까? 의뢰받은 건축물이 그렇게도 기분대로 새롭고 대담하게 그려지며, 만족했던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名作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

얼마전 학교 교수님의 소개로 B大 K교수 부부를 사무실에서 맞았을 때의 일이었다. 근 2年동안 구상해온 주택 평면 여러장과 각종 scrap을 해 온 건축자료들을 보고, 우선 감동하고 그들의 소망에 머리가 숙여졌다.

35평 정도의 주택을 구상하는데 근 2년여이란 장시간, 이들 부부는 온갖 건축잡지며 각종 자료를 모아 밤마다 휴일마다 건축공사장에 관심을 두며 계획 구상했다는 자료를 정리 해 보곤 너무나 어이가 없음을 보았다. 그들에게

실망이 가지않도록 쉽게 설명 해대며 조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sketch해서 合理性을 설명해 대었더니 그들은 어이가 없다는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허탈해 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우린 헛그림만 그렸구려!”

담배를 깊숙히 빨아대는 그를 대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헛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며 새롭고 아름다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그동안 쌓은 것이라며 위로를 한 적이 있었다.

장시간 어렵게 구상하고 다듬어온 그들 도면위에 새카맣게 그려낸 sketch가 과연 어느정도 그들에게 만족했을까 또 좋은 작품이었을까?

그들은 모른다. 수 없이 오랫동안의 작업과 계획을 단칼에 난도질하는 소위 전문가의 口辯과 학설에 긍정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집이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계획되고 완성될까? 나의 속성 sketch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어본다.

의뢰받은 건축계획은 모두가 나의집 설계하는 자세로作業에 임 해야 겠다고 다짐하며.

東萊設計社 代表